

주재국외 출장 결과보고

1 개 요

- 출장일정 : '22. 5. 24(화) ~ 28(토)
- 출장장소 : 미국 워싱턴주(씨애틀),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
- 출장자 : 노인섭 센터장
- 주요내용 : '22년 수산식품 앵커숍 현장실사 및 미국 워싱턴주, 캐나다 서부지역 시장조사
 - 수산식품앵커숍 예정지 방문 점검 및 세부 추진계획 협의
 - 현지 대형마트 및 한인마트 시장조사를 통해 수산식품 트렌드 파악

2 출장 주요 일정

일 시	내 용	비 고
2022. 5. 24(화)		
09:40~12:30	LAX공항 ⇨ 씨애틀 공항	차량 렌트 및 이동
14:30~16:00	한국 수산식품 취급 바이어 면담	SKS International Inc.
16:00~19:00	현지 아시안 마켓 견학	H마트 1개소, Asian Family
2022. 5. 25(수)		
08:30~09:30	로컬 농수산물 직판장	Pike place Market
09:30~11:00	아시안 수산물 취급 바이어 면담	KIBUN Foods Inc.
13:00~15:00	워싱턴주 H마트 운영사업자 견학	Seoul Trading Inc.
15:00~18:00	일본마켓 1개소, 중국마켓 1개소	Ranch, Uwajimaya
2022. 5. 26(목)		
09:00~14:00	캐나다 이동	차량이동(4시간), 출입국(1시간)
15:00~16:30	코트라 방문 및 협의	벤쿠버 무역관
16:30~18:00	벤쿠버 지역 마켓 시장조사	Konbiniya 일본식품판매점

일 시	내 용	비 고
2022. 5. 27(금)		
08:30~09:30	농수산물 도매시장 견학	Public Market(그랜빌)
09:30~15:00	앵커숍 운영 사업자 미팅 및 매장 점검	한남체인 4개소
15:00~17:00	중국계 마켓 시장조사	TNT, Langley
2022. 5. 28(토)		
09:00~12:00	한인마켓 1개소 및 백인마켓 1개소	H마트, Superstore
12:00~17:00	씨애틀 이동	차량이동(4시간), 출입국(1시간)
19:30~22:15	씨애틀 공항 ⇨ LAX 공항	

3 출장 세부내용

가 씨애틀 지역 한국수산물식품 수입 바이어 미팅 [화,수]

[SKS International Inc] <https://www.sksiseafoods.com/>

□ 협의개요

- (일시) '22. 5. 24 (화) 14:30 ~ 22:00, 12 (목) 11:30 ~ 12:10
- (장소) SKS International Inc 본사(Lynwood)
- (참석) 노인섭, SKS 박영섭 팀장

□ 주요 회의내용

- 해당 업체는 주로 알래스카 지역 연어와 명태, 대구를 수입하여 미국 및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,
- '21년 하반기 이후, 한국 수산물식품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전략 수립
- 현재 한국산 김가공식품 업체와 접촉하여 제품 개발 중이며, 미국 내 기존 거래처(식당) 및 아마존 내 입점을 위해 세부 검토 중
 - 기존 거래처는 백인을 상대로 하고 있음

- 6월 LA 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온라인 박람회 및 10월 무역상담회, 11월 부산 벡스코 행사에 참여기로 합의
- 김 가공식품 이외에 백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품목에 대한 고민과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



[KIBUN Foods Inc] <https://www.kibunusa.com/>

□ 협의개요

- (일시) '22. 5. 25 (수) 09:30 ~ 11:00
- (장소) KIBUN Foods Inc 본사(Seattle)
- (참석) 노인섭, KIBUN 류지 미즈다 실장(일본인), 고태원 실장

□ 주요 회의내용

- 해당 업체는 주로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여 미국 내 레스토랑 및 아시안마켓에 공급 중
 - 주력 품목 : 어묵 가공제품(해당 업체 브랜드 유명)
 - 어묵을 활용한 누들(면) 신제품 런칭하여 판매 호조 중
- '21년 겨울 및 '22년 초 일본 산 방어(하마치) 수급 문제로 한국산 방어 대체로 문제 해결하였고, 공급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한국 수산식품 수입 컨택 포인트를 LA 센터와 협의
- 한국산 김, 넙치 등 미국 시장 내 수출이 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 예정

- 6월 LA 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온라인 박람회 및 10월 무역상담회, 11월 부산 벡스코 행사에 참여키로 합의



[Seoul Trading Inc]

□ 협의개요

- (일시) '22. 5. 25 (수) 13:00 ~ 15:00
- (장소) Seoul Trading Inc Seattle 지사(Auburn)
- (참석) 노인섭, 서울트레이딩 김태완 팀장

□ 주요 회의내용

- 워싱턴주 및 오레건주 H마트 운영 동향 파악
 - '22년 실적은 전년 대비 소폭 내림세며, 주요 원인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단
 - 금리 인상, 정부지원금 소진, 유가 상승 등 소비자들의 주머니 경제 악화에 따라 식품 소비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 → 신제품 런칭 어려움
- '23년까지 2개 신규 매장 오픈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한국 수산식품에 대한 수입은 확대할 예정
- '22년 6월 미국 항만 사업자와 노조와의 협상이 하반기 리테일 실적에 큰 영향 예측(재고관리 문제)

- '22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 확인
 - 전복(CAN) 제품의 제품 개발단계와 타겟 시장 세부내용 논의
 - 한국산 전복의 프리미엄 시장 안착을 위해 다방면의 전략 수립 예정
- 6월 LA 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온라인 박람회 및 10월 무역상담회, 11월 부산 벙스코 행사에 참여기로 합의



나 캐나다 밴쿠버 지역 코트라 무역관 면담 (목)

□ 협의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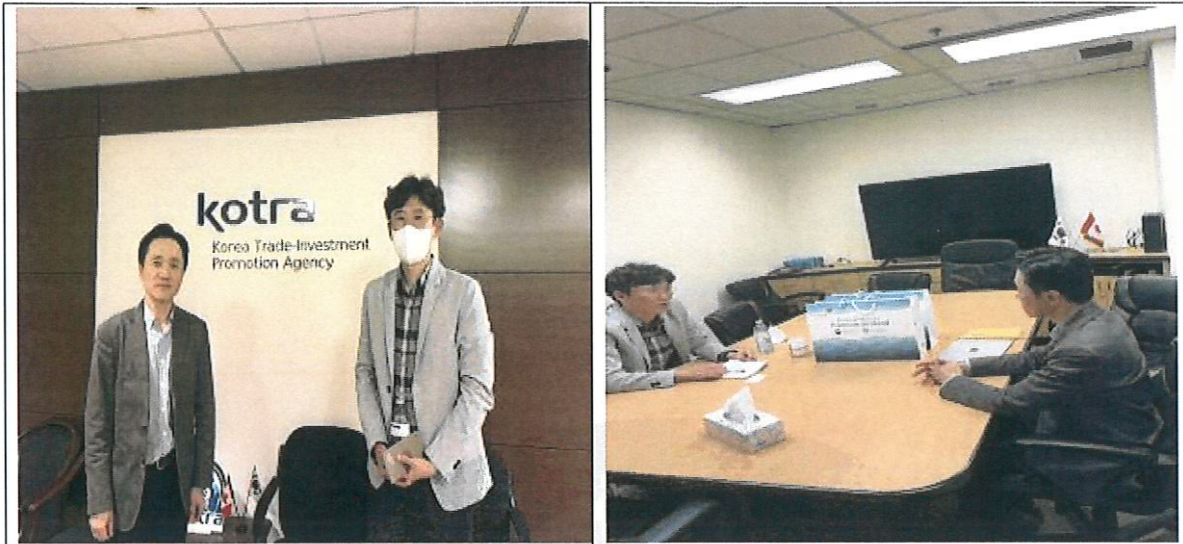
- (일시) '22. 5. 26 (목) 15:00 ~ 16:30
- (장소) KOTRA 밴쿠버 무역관 회의실
- (참석) 노인섭, 코트라 안성준 관장, 이정현 대리

□ 주요 회의내용

- 최근 캐나다 서부지역 리테일 마켓 내 수산식품 동향 논의
 - 아시안 인구의 분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안 마켓 점포 수도 늘어나고 있음
 - 중화권 마켓이 아시아 마켓중 규모가 가장 크며, 다양한 수산식품을 수입하고 있음
 - 최근 한국산 냉동굴 수입과 관련한 캐나다 정부 입장에 수입 바이어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며, 해결 방안 모색 중
- 코트라 내 '지사화 사업'의 일환으로 수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,

신규 시장 개척 필요사항 상호 협조기로 논의

- 또한, 6월 온라인 박람회 및 10월 무역상담회 사업을 벤쿠버 무역관 관내 바이어에게 공람하여 사업 참여 협조기로 합의
 - 한국 수산식품 관심 바이어 리스트 제공 여부 내부 검토 후 회신



다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사업자 점검 및 약정 [금]

□ 협의개요

- (일시) '22. 5. 27 (금) 09:30 ~ 15:00
- (장소) T-brothers 본사 및 한남체인 마켓 4개소 방문
- (참석) 노인섭, T-brothers 나웅찬 팀장, 윤성원 팀장, 김인섭 차장

□ 주요 회의내용

○ 앵커숍 예정지 실사

- 운영사업자의 자체 매장으로 '21년과 동일하게 4개 매장의 수산코너에 shop in shop 형태로 앵커숍 운영 예정
- 수산코너 인근으로 정육코너와 반찬류 코너를 배치하여 집객력 제고
- '21년 앵커숍 종료 이후에도 3개 점포에서 동일하게 한국수산식품 코너로 활용 중이었음 (앵커숍 디자인 그대로 사용 중)

○ 온라인 앵커숍 계획

- 현 운영사업자의 자회사에서 '21년 신규 오픈한 온라인몰에서 한국수산물식품관을 운영 예정이며,
- 제품보관 및 배송 문제로 인하여 가공식품(Dry)을 우선적으로 판매 활성화 추진

○ 앵커숍 입점품목

- 기존 취급품목에 '22년 수출유망상품화 제품 등을 제시하여 시장성 테스트하러 사업간 시너지 제고
- 캐나다 수입통관 문제 없는 제품으로 제시
- 농산품 및 가공품 20% 내외로 앵커숍 내 진열 및 판매 예정

○ 운영시기 및 홍보전략

- 7월 말 ~ 10월 말까지 운영 계획
- 8월 여름 제철 수산물식품, 9월 추석 관련 수산물식품, 10월 땡스기빙 관련하여 홍보 테마 준비
- 카톡을 활용한 정기적인 한국수산물식품 홍보 메시지 발송하여 소비 활성화 유도키로 논의

○ 기타 논의사항

- 6월 온라인 박람회 및 10월 무역상담회 참여하여 한국 수산물식품 수출업체 발굴키로 합의





라 시장조사 [화~토]

□ 조사내용

- 로컬마켓 대상 한국수산물 수입 전략 검토
- 한인마켓 대상 한국수산물 소비관측 행사 타당성 점검

□ 시장조사 일정

일자	시간(이동시간포함)	주요내용
5.24(화)	16:00~17:30	H마트 1개소(린우드 지점 - 매장규모 제일 큼)
	17:30~19:00	Asian Family Market (아시안마켓-중국운영)
5.25(수)	08:30~09:30	Pike place Market(씨애틀 농수산물 도매시장)
	15:00~16:30	Ranch (중국마켓)
	16:30~18:00	Uwajimaya (일본마켓)

일자	시간(이동시간포함)	주요내용
5.26(목)	16:30~18:00	Kobiniya 일본식품 판매전문점 (앵커숍 유사)
5.27(금)	08:30~09:30	Public Market(그랜빌) - 벤쿠버 농수산물 도매시장
	15:00~16:00	TNT (아시안 마켓)
	16:00~17:00	Langley (아시안 마켓)
5.28(토)	09:00~10:30	H마트 1개소(랭글리)
	10:30~12:00	SuperStore(리치먼드)

□ 주요내용

[미국 워싱턴주]

① H마트

○ (주소) 3301 184th St SW, Lynnwood, WA 98037

○ (조사내용)

- 워싱턴주 내 운영 중인 H마트(총8개소) 중 규모가 가장 큼
- 아시안 인구 밀집 지역에 운영 중으로 마트 내 식표품에 대한 표기 언어는 한국어, 중국어, 영어로 3개 국어 표시
- 완제품 패키지가 아닌 마트 별도 소포장 제품(멸치, 새우, 오징어채 등) 코너의 판매가 매우 높은 편
 - 완제품 패키지와 비교하면 가격이 낮음
- 미국 내 기호식품인 틸라피아를 필렛 및 절단 형태 이외에 활어 상태로도 판매 → 구매 시 마트 수산코너에서 손질 처리
- 한국산 광어(활어)도 판매 중이었으나, 가격이 1파운드에 44.99 USD로 상당히 높은 편
 - 한국산 활 광어는 항공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데, 최근 항공운임 폭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에 큰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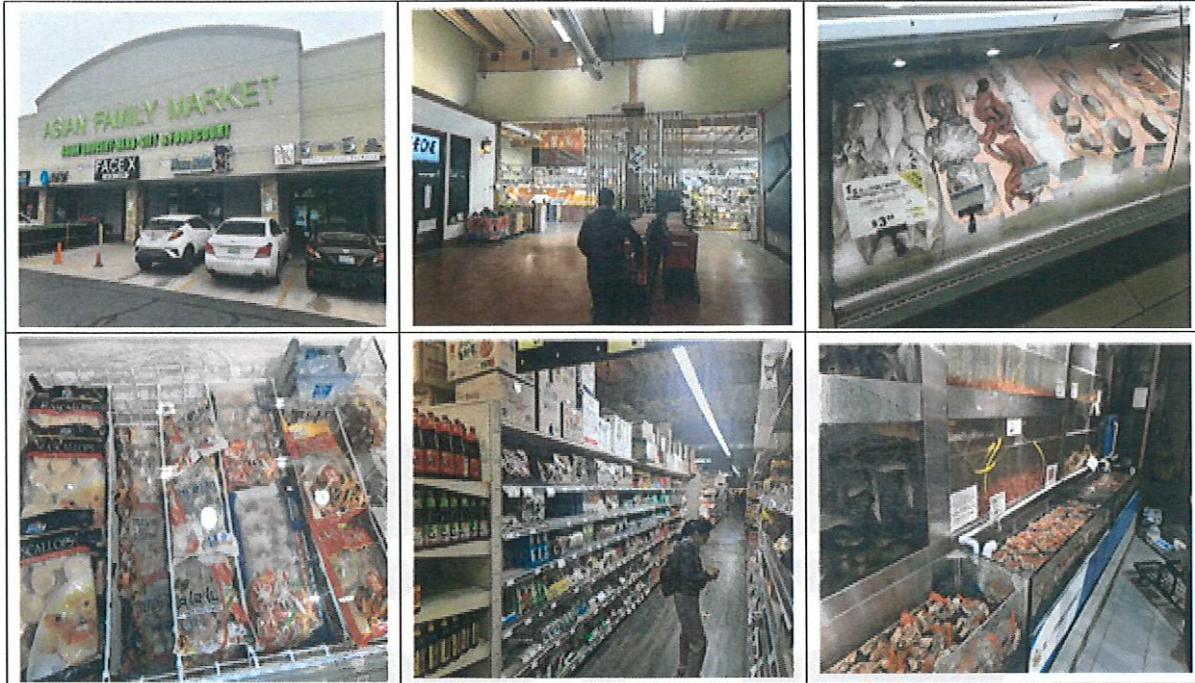
② Asian Family Market

○ (주소) 13200 Aurora Ave N, Seattle, WA 98133

○ (조사내용)

- 중화권 인구 밀집 지역에 운영 중이며, 워싱턴주 내 총 2개소 분포
- 매장 내 모든 안내 표기는 중국어로 되어 있음
- 원물 수산물은 틸라피아, 문어, 연어, 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있었으며, 한국 수산식품 냉동 원물은 부재
- 냉동 가공식품에는 원산지(수출국가)는 중국이나 완제품의 패키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있는 제품이 다수 있었음
 - 한국어로 표기할 경우 중화권 내에서도 양질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매 전략으로 활용 중
- 중국 마켓 특성상 전복 수요가 높으므로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으며, 가격 또한 한국산 전복에 대비하여 저렴한 것으로 조사 됨
- 이는 향후, 한국 전복의 미국 내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됨

- 김의 경우 매장 내 한국산 김 60%, 일본산 30%, 기타 10% 비율로 진열되어 있었으며, 확실히 아시안 마켓 내 한국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
- 일본, 태국 등에서 김을 활용한 다양한 김가공식품 제품이 수입되고 있음(스낵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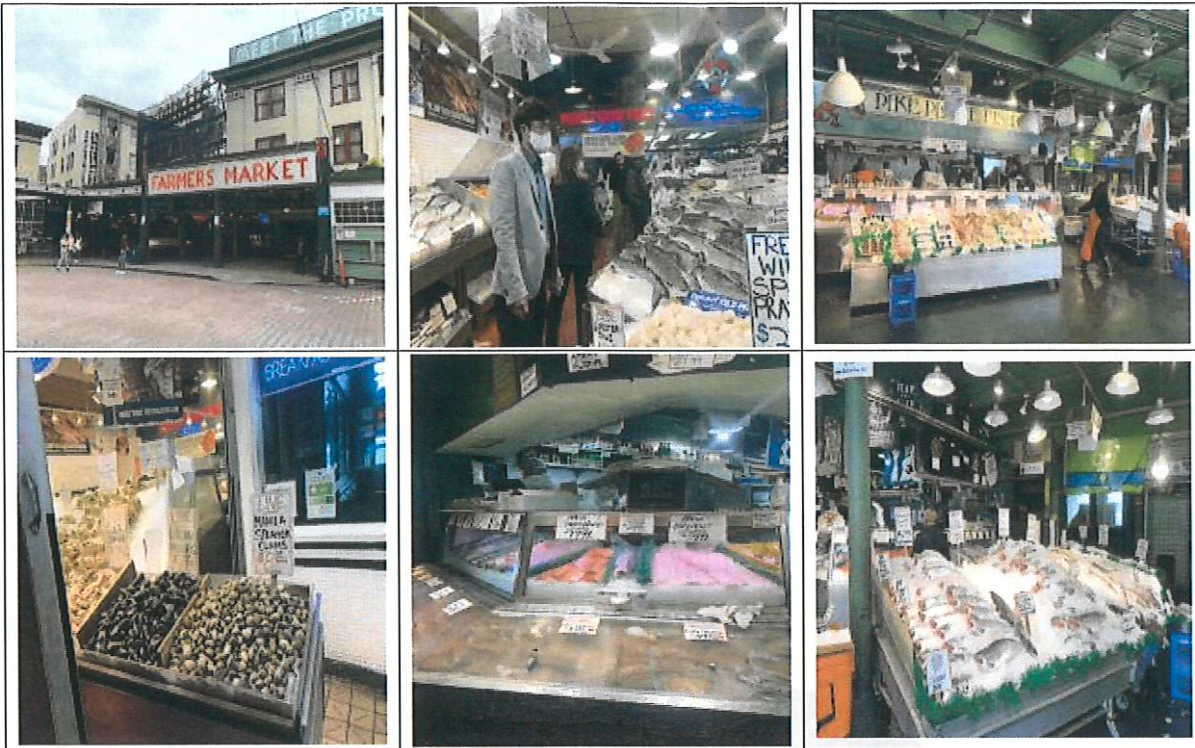


③ Pike Place Market

○ (주소) 86 Pike Pl, Seattle, WA 98101

○ (조사내용)

- 씨애틀항구 앞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으로 그 날의 싱싱한 수산물을 도매 또는 소매 판매하고 있음
- 씨애틀 내 레스토랑과 연계한 판매가 주요 매출
- 다양한 어종을 다루고 있지 않음
- 주로 연어, 대구, 랍스터, 조개류(홍합, 굴, 전복), 새우를 판매
- 현지 백인들이 섭취하는 주요 수산품목의 유통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, 한국 수산식품을 접목하여 경쟁할 품목에 대해 검토 필요
- 원물보다는 인기 품목을 활용한 가공제품으로 검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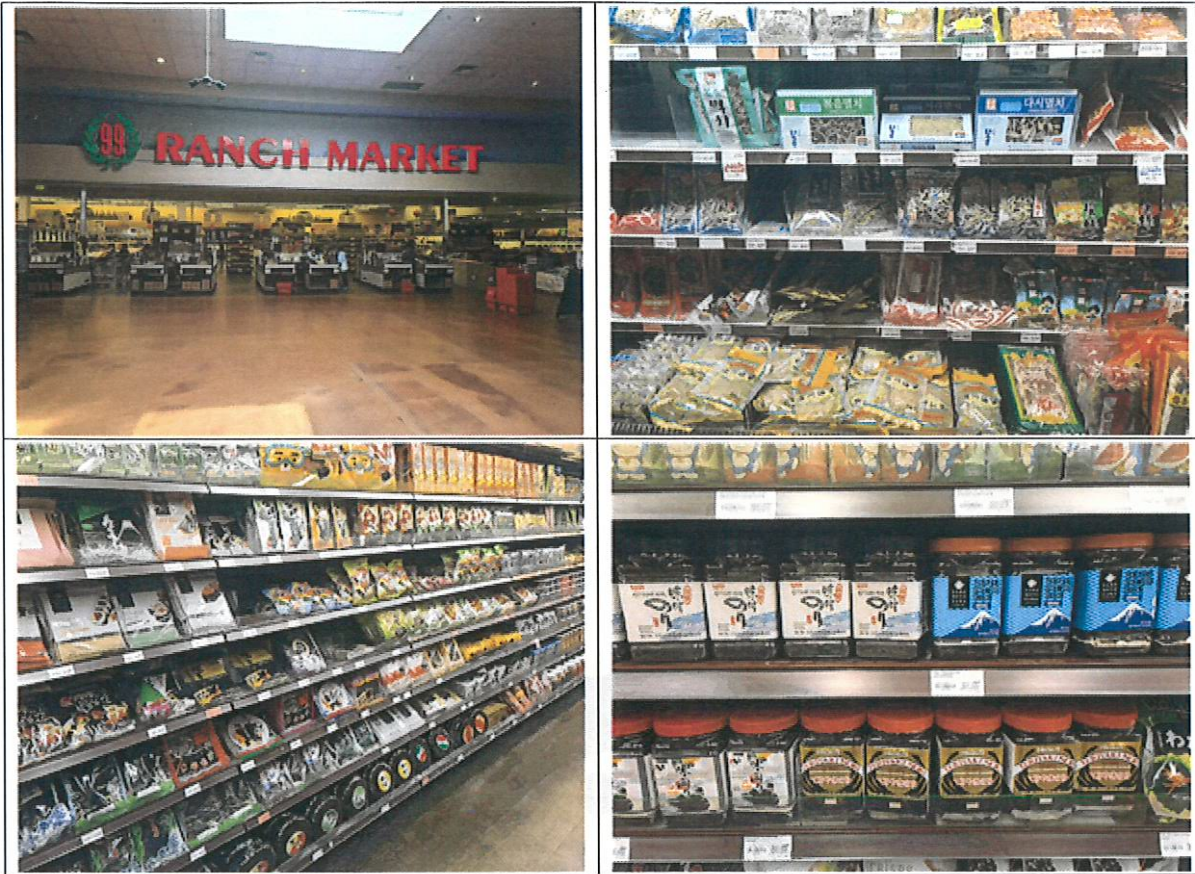


④ 99 Ranch Market

○ (주소) 18230 E Valley Hwy, Kent, WA 98032

○ (조사내용)

- 중화권 인구 밀집 지역에 운영 중이며, 워싱턴주 내 총 2개소 분포
- 매장 내 모든 안내 표기는 중국어로 되어 있음
- 한국산 멸치에 대한 수요가 높은편으로 다양한 한국산 멸치 제품이 진열되어 있음
- Asian Family Market과 동일하게 일부 냉동 가공식품이 중국산 인데 외포장지에 한국어 표기하여 한국산인 척 판매되고 있음
 - 한국어로 표기할 경우 중화권 내에서도 양질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매 전략으로 활용 중
- 생굴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제품의 매대가 넓게 배치되어 있는바,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→ 미국 현지 생산굴 추정
- 김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한국산이 압도적임. 다만, 일본의 김가공 식품과 형태의 차이가 있음
 - 향후 상품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하여 제품 개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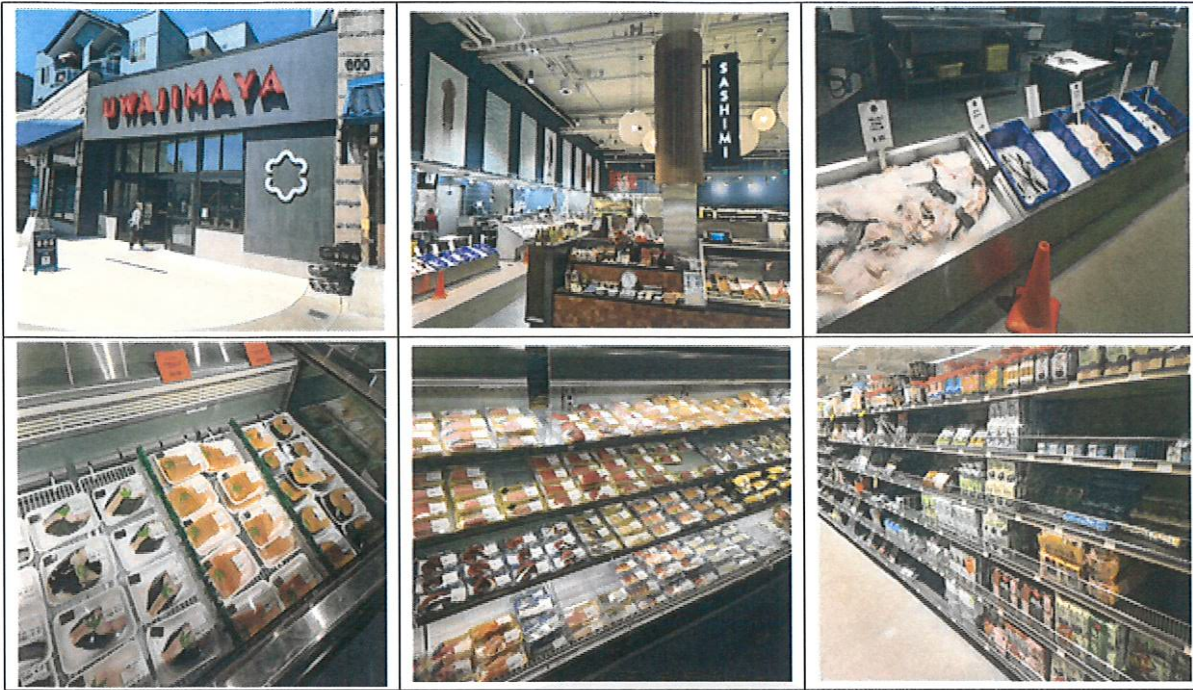


⑤ Uwajimaya

○ (주소) 600 5th Ave S, Seattle, WA 98104

○ (조사내용)

- 씨애틀 내 일본인 마켓으로 워싱턴주 내 총 3개소 운영 중
- 타 아시안 마켓 대비, 수산코너 규모가 제일 큼
- 방어, 연어, 대구 등 다양한 필렛류 제품들 진열이 넓게 되어 있었으며, 스시(사시미) 코너가 인접하여 판매 효과 견인 중
 - 문어, 삼치, 참치, 크랩살 등 마트에서 별도로 소포장한 제품들의 수요가 높아 보임 → 일본의 식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
- 김의 경우, 타 아시안 마켓과 비교했을 때, 한국산 김의 진열이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일본산 김가공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음
 - 일본 마켓 진출 확대를 위하여 일본산 김 가공품들의 용기 형태 등에 대한 분석 필요



[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]

① Kobiniya

- (주소) 1238 Robson St, Vancouver, BC V6E 1C1 캐나다
- (조사내용)
 - 벤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소규모 일본식료품 판매점으로 센터에서 운영 예정인 앵커숍(로드숍)과 유사한 형태의 점포
 - 과자, 농산, 수산 등 다양한 일본의 식료품이 판매되고 있으며, 소포장 형태의 제품들이 주로 진열되어 있음
 - 수산물의 경우는 김, 김스낵, 멸치, 해조류, 필렛생선류, 어묵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한국산은 없었음
 - 일본 식료품 전문판매점이다 보니, 모두 일본 제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음
 - 관광객들의 수요를 겨냥한 일본식 문화를 접목한 판매점 형태
 - 향후 한국수산물식품 앵커숍 운영 시 참고 사항 없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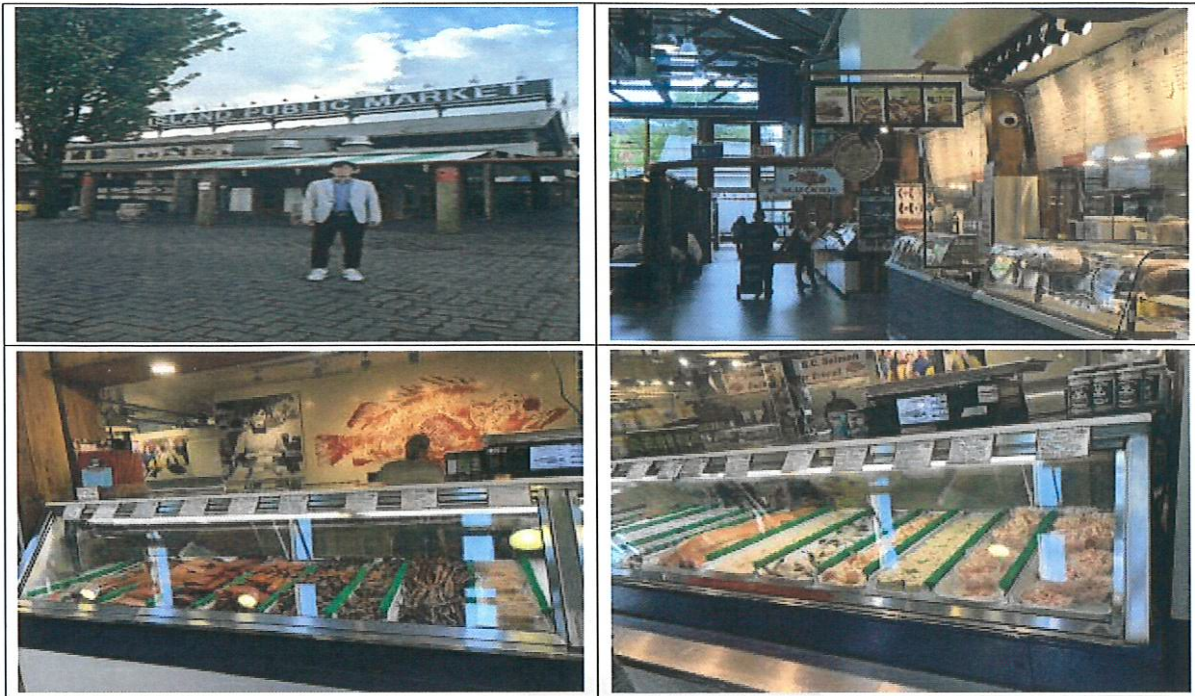


② Public Market(그랜빌)

○ (주소) Public Market, 1689 Johnston St, Vancouver, BC V6H 3R9 캐나다

○ (조사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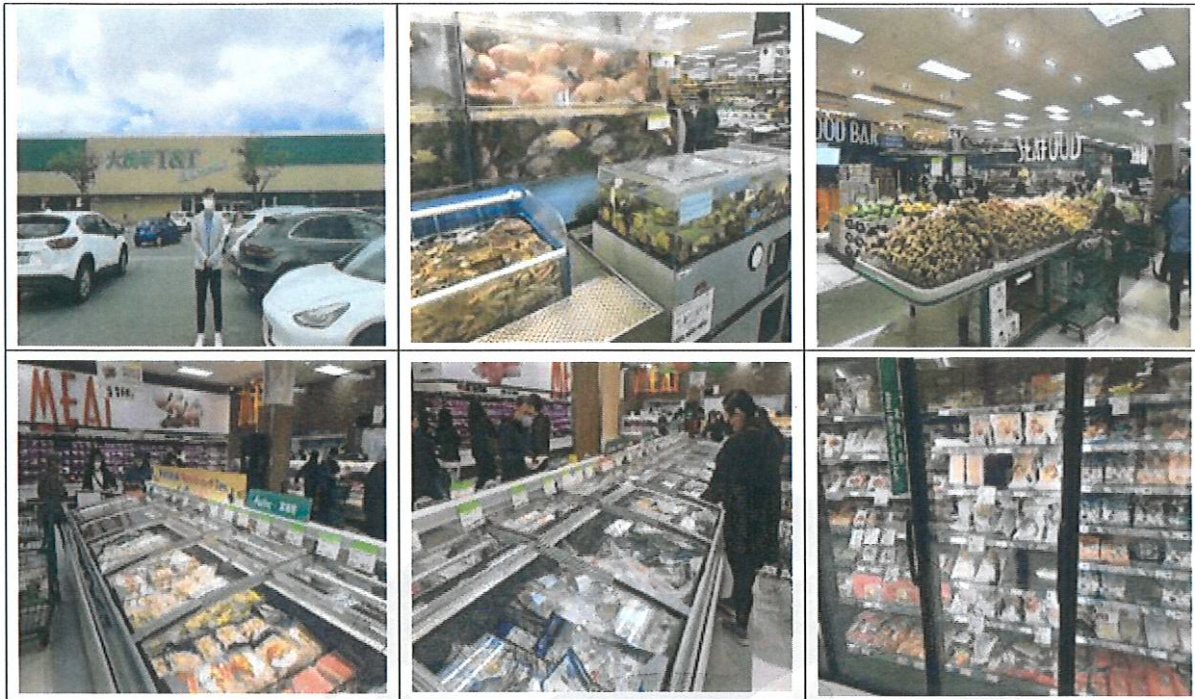
- 벤쿠버 내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도매 또는 소매 판매하고 있음
- 수산매장은 5개소로 많지 않음
 - 주로 연어, 대구, 랍스터, 조개류(홍합, 굴, 전복)를 판매하고 있으며, 수입산이 아닌 모두 현지 생산품목임
- 현지 백인들이 섭취하는 주요 수산품목의 유통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, 한국 수산식품을 접목하여 경쟁할 품목에 대해 검토 필요



③ TNT Market

- (주소) 5511 Hollybridge Way #135, Richmond, BC V7C 0C3 캐나다
- (조사내용)
 - 캐나다 서부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최대 규모의 아시안 마켓으로 매년 신규 매장이 늘어나고 있음
 - 로컬 마켓인 Superstore(백인)의 경쟁사
 - 지역 내 아시아 인구의 구매 수요를 잡기 위해 대형 유통마켓별 경쟁 치열
 - 수산코너 제품군을 다양하게 조달하고 있으며,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, 일본인 대상의 제품까지 소싱하여 판매 중
 - 해당 인종 대상의 포장 패키지, 안내문구를 모두 표기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
 - 타 아시안마켓 대비 활어 수조 규모가 제일 크며, 현지 생산되는 게, 전복, 새우 등 품목 판매 중
 - 활어의 수입 제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지 생산 어종만 판매 되고 있음

- 태국, 베트남, 필리핀 등 동남아 인구를 겨냥한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수요 창출
- 해당 국가 배려에 따라 소비자 구매력 상승 요인 작용



④ Langley Farm Market

- (주소) 5511 Hollybridge Way #135, Richmond, BC V7C 0C3 캐나다
- (조사내용)
 - 중소규모의 유통마켓으로 주로 육류, 채소, 수산물에 제한하여 판매하는 식료품점
 - 기타 소비재가 판매되고 있지 않고 식자재만 유통
 - 수산식품으로는 냉동 생선 필렛류와 김, 어묵, 새우, 냉동 원물 몇 종으로 수가 다양하지 않음
 - 크지 않은 매장이지만 한국 조미김이 판매되고 있었고, 매장 매니저 확인 결과 한국 조미김의 수요는 중국인에게 지속적임을 확인함
 - 또한, 한국어로 표기된 조기, 삼치 냉동 패키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확인 결과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확인됨



⑤ H마트(랭글리)

○ (주소) 19555 Fraser Hwy, Surrey, BC V3S 6K7 캐나다

○ (조사내용)

- 캐나다 서부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8개 점포 운영 중
- 중화권 마켓인 TNT를 경쟁사로 하여 성장 중
- 미주지역 H마트와 별도의 법인이지만 소싱 채널 공유를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 조달 중
- 마켓 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기된 제품들이 다수 진열되어 있으며 수요 창출을 위해 매장 내 다양한 슝인슝을 연계하여 운영 중



⑥ Super Store(백인마켓)

○ (주소) 4651 No. 3 Rd, Richmond, BC V6X 2C4 캐나다

○ (조사내용)

- 캐나다 로컬 브랜드 대형유통마켓으로 마트 정식 명칭에 Real Canadian이 들어갈 정도로 자부심 강한 브랜드임
- 캐나다 서부지역에 14개 점포 운영 중
- 서부지역 내 아시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적용되고 있음
- 아시안 코너 별도 운영, 회원제 별도 운영 등
- 수산식품 중 주요 품목은 백인 사회의 기호식품인 연어, 대구의 필렛류 이고, 새우와 랍스터 등이 활어 상태로 유통됨
- 아시안 코너에만 한국 김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음

